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과 시사점

# 목 차

---

## ■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가계소비 부진 지속 .....	1
2.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	2
3.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 .....	4
4. 시사점 .....	13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백   흥   기   이사대우 (2072-6228, hkback@hri.co.kr)

산업컨설팅실   :   임   희   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요약 >

#### ■ 가계 소비 부진 지속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및 소비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크다. 최종소비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01~2007년 2.17%p에서 2008~2014년 1.07%p로 하락한 반면, 정부 부문은 0.70%p에서 0.54%p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전체가구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국내 전체가구의 가계수지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10년 18.3%에서 2014년 22.0%로 상승했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개선은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5%에서 2014년 72.9%로 하락했다.

(적자가구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09년 -28.6%에서 2013년 -25.3%로 개선되나 2014년 -25.9%로 다소 악화되었다. 적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38.4%에서 2013년 133.8%로 하락했으나 2014년 134.3%로 상승했다.

#### ■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

(가계 수입) 국내 적자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차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2001년 9.9%⇒2014년 11.1%)은 전체가구(9.9%⇒3.6%)보다 높고 자산변동 지출 비율도 전체가구보다 높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2009년 10.0%⇒2014년 11.1%)를 보인 반면,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12.4%p 증가(11.5%⇒23.9%)했다.

(소득수준별 가계 수입)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차입과 자산변동 수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며 저소득층을 상회한다.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비율이 증가(2009년 10.4%⇒2014년 17.8%)하며 2013년부터

저소득층(2009년 13.9%⇒2014년 10.2%)을 상회한다.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수입 비율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15.3%⇒58.0%)하며 저소득층(17.1%⇒18.1%)보다 높다.

**(가계 지출)** 국내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2001년 26.5%⇒2014년 42.1%)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30.1%⇒36.6%)은 전체가구보다 크다. 적자가구의 부채상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10.4%p 상승(2009년 31.7%⇒2014년 42.1%)했고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12.2%p 상승(24.4%⇒36.6%)했다.

**(소득수준별 가계 지출)**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보다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상승(2009년 38.6%⇒2014년 45.4%)하며 저소득층(34.1%⇒36.6%)과 중간소득층(30.7%⇒42.1%)보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높다.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7.8%p 증가(2009년 29.8%⇒2014년 57.6%)하며 저소득층(20.9%⇒26.7%)과 중간소득층(25.7%⇒40.5%) 증가 폭을 상회한다.

**(품목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의 교통과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이 크나 금융위기 이후 교통 부문만 비중이 증가한다. 적자가구의 경우 교통, 식료품,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고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 음식·숙박, 교통,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구의 교통 소비 비중은 상승(2009년 16.2%⇒2014년 18.8%)한 반면, 식료품(12.9%⇒12.3%)과 교육(15.6%⇒11.9%) 부문은 하락했다.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13.8%⇒13.7%)과 음식·숙박(13.1%⇒13.3%) 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정체상태에 가깝고 교통(12.2%⇒12.7%) 부문은 소폭 상승했다.

**(소득수준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교통과 교육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의 비중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교통 부문 소비 비중이 13.4%p 상승(2009년 23.3%⇒2014년 36.7%)하나 교육(17.1%⇒11.6%)과 음식·숙박(10.0%⇒9.1%) 부문은 하락했다.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식료품 부문 소비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2009년 18.7%⇒2014년 18.2%)하나, 주거·수도(14.7%⇒15.0%), 음식·숙박(9.7%⇒10.7%), 보건(9.8%⇒10.4%) 부문은 상승했다.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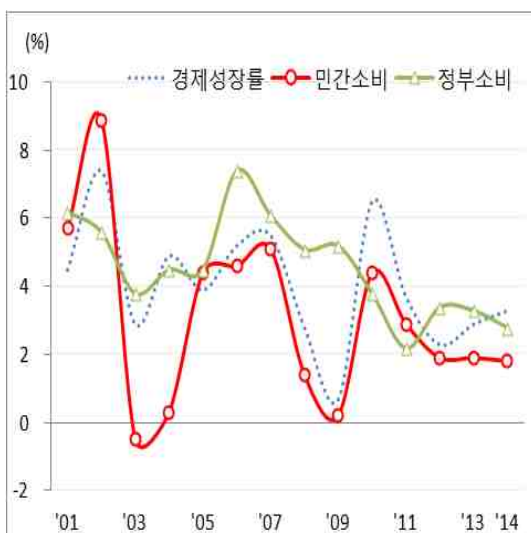
**첫째**, 가계소득 제고를 통한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적자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가계의 품목별 및 소비별 소비 구조를 고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적자가구에 대한 식료품, 보건 등 필수재 부문 공급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필수 소비재 바우처(가칭)'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부실로 인한 국내 경제 활력 저하 우려에 대한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

## 1. 가계 소비 부진 지속

### ○ 가계 소비 증가율 둔화는 국내 경제성장률 부진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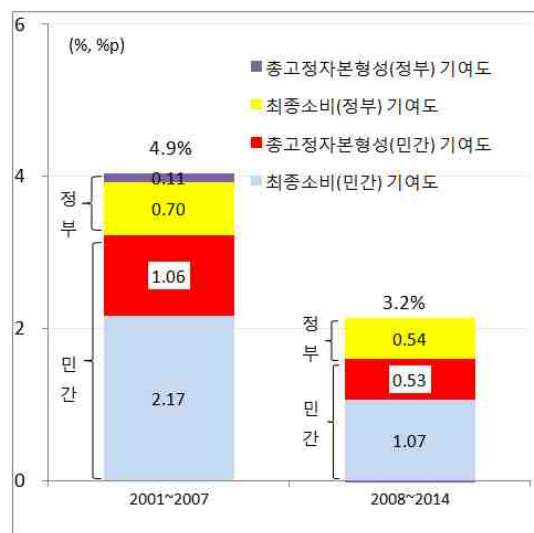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및 소비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소비 부문에서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보다 컸음
  - 최종소비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01~2007년 2.17%p에서 2008~2014년 1.07%p로 하락. 정부 부문은 0.70%p에서 0.54%p로 하락
  - 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01~2007년 1.06%p에서 2008~2014년 0.53%p로 하락. 정부 부문은 0.11%p에서 -0.01%p로 하락
- 이에 따라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와 적자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특히, 국내 적자가구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국내 GDP성장률과 소비 증감률 >



주 : 한국은행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소비와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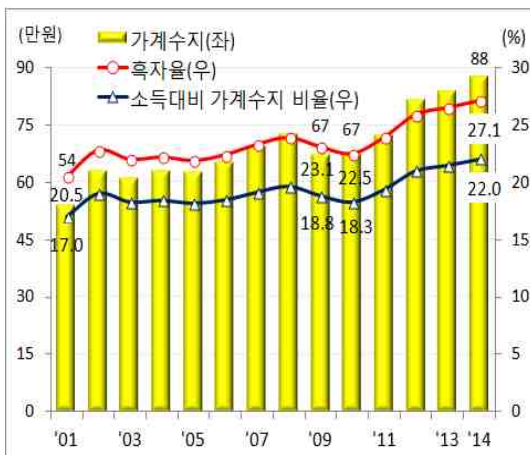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이용하여 HRI 재구성.

## 2.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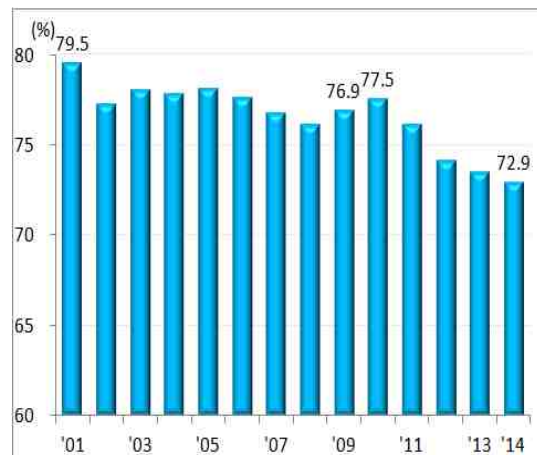
○ (전체 가계수지<sup>1)</sup>와 소비성향) 전체 가구의 가계수지는 다소 개선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가계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으나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음
  - 가계수지는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것을 의미<sup>2)</sup>
  -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10년 18.3%에서 2014년 22.0%로 상승했고 흑자율(가처분소득 대비)은 2010년 22.5%에서 2014년 27.1%로 상승
- 소득대비 가계수지 개선은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평균소비성향은 금융위기 이후 2010년 77.5%에서 72.9%로 하락
  -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 증가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소비와 경기 부진 지속

<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수지 추이 >



<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진소득을 의미.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됨.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 비소비지출은 조세, 보험 연금, 이자 등을 포함. 가계수지(가계소득 - 가계지출)는 소득대비 혹은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흑자율)을 표현할 수 있음.
- 2)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2001년 66.0%에서 2014년 59.2%로 6.8%p 하락한 반면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1년 17.1%에서 2014년 18.7%로 1.6%p 상승에 그침. 비소비지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지출이 줄어들어 가계수지가 개선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 2] 소득 대비 지출 비중 및 소득 분위별 적자가구비중 추이」 참조.

○ (적자가구<sup>3)</sup>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적자가구의 가계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 다시 악화되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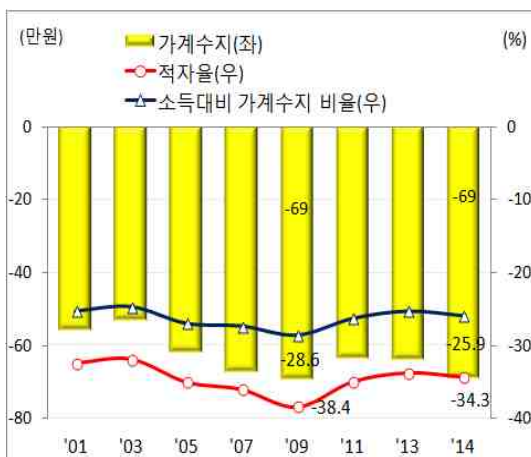
- 적자가구의 가계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다소 악화됨<sup>4)</sup>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09년 -28.6%에서 2013년 -25.3%로 개선되었으나 2014년 -25.9%로 다소 악화.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2009년 -38.4%, 2013년 -33.8%, 2014년 -34.3% 기록<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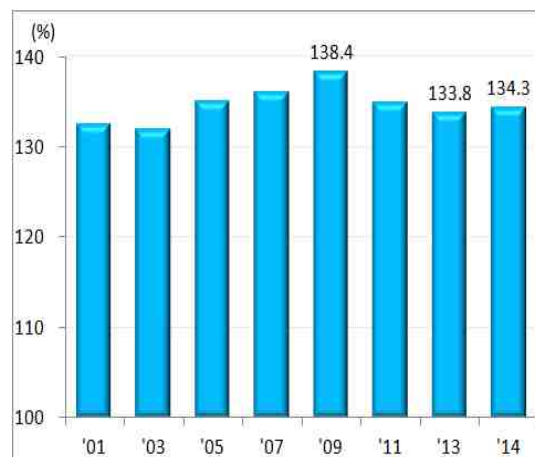
- 적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상승 전환

· 적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38.4%에서 2013년 133.8%로 하락했으나, 2014년 134.3%로 다소 상승

< 적자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수지 추이 >



< 적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3) 개별 가계의 적자 증가는 금융부채 증가나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매각함에 의해 보전되므로 가계적자의 발생은 가계부채 증가 등과 연결되며 적자가구는 미래 소비를 줄이게 될 수 있으므로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계임.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소득} + \text{자산매각 등} + \text{부채차입} &= \text{소비지출} + \text{비소비지출} + \text{자산구입 등} + \text{부채상환} \\ \Rightarrow \text{소득} - \text{소비지출} - \text{비소비지출} &= (\text{자산구입 등} - \text{자산매각 등}) + (\text{부채상환} - \text{부채차입}) \\ \Rightarrow \text{가계수지} &= \text{자산변동(순)} + \text{순부채상환} \end{aligned}$$

(『한국은행(2013),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BOK 경제리뷰, 8월』에서 재인용)

4) 적자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1.8%,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적자가구 비중이 높음 (2014년 기준 1분위 46.3%, 5분위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소득 대비 지출 비중 및 소득 분위별 적자가구비중 추이” 참조).

5)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2001년 82.4%에서 2014년 80.6%로 1.8%p 하락한 반면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1년 17.6%에서 2014년 19.4%로 1.4%p 상승.

### 3.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

○ (가계 수입<sup>6)</sup>) 적자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차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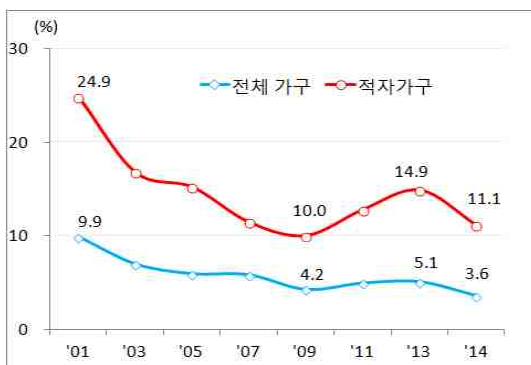
- 부채차입<sup>7)</sup>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했으나 최근 하락으로 전환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은 2001년 24.9%에서 2014년 11.1%로 전체가구 비율(2001년 9.9%에서 2014년 3.6%)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은 2009년 10.0%에서 2013년 14.9%까지 증가세였으나 2014년 11.1%로 하락 전환
- 반면, 전체가구의 부채차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2009년 4.2%⇒2014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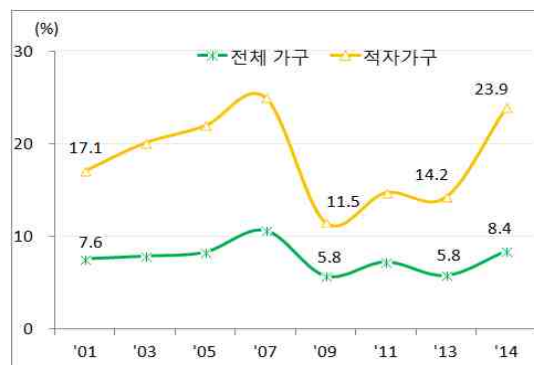
- 자산변동 수입<sup>8)</sup>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수입 비율(2001년 17.1%⇒2014년 23.9%)은 전체가구 비율(2001년 7.6%⇒2014년 8.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1.5%에서 2014년 23.9%로 12.4%p 증가
- 한편, 전체가구의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6%p 증가(2009년 5.8%⇒2014년 8.4%)

<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 추이 >



< 소득 대비 자산변동 수입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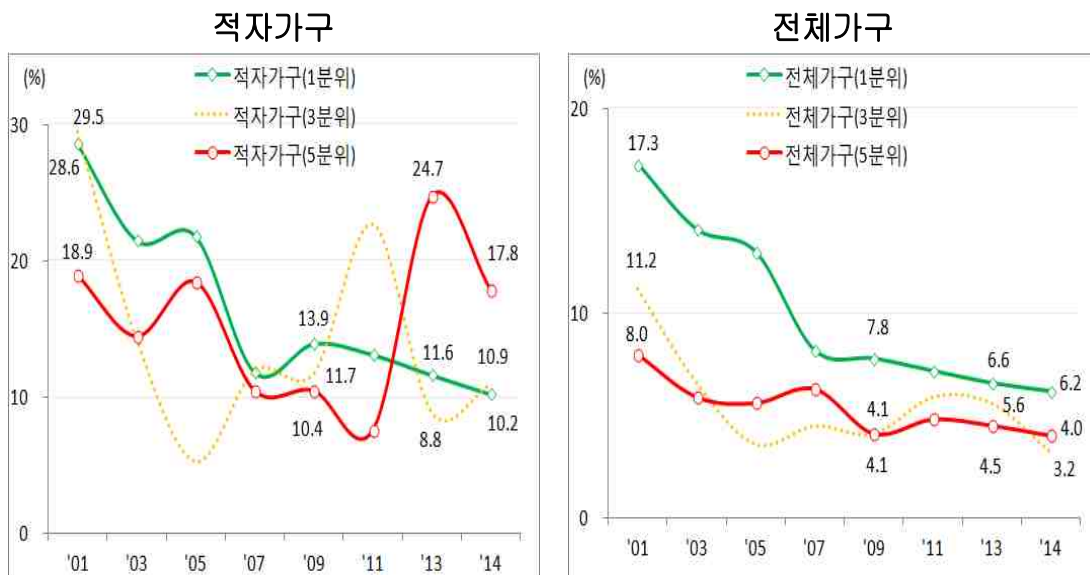
6) 가계는 가계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차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  
 7) 부채차입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을 의미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포함.  
 8)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 및 보험탄 금액, 유가증권 매각,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



○ (소득수준별 가계 수입)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부채차입과 자산변동 수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며 저소득층을 상회<sup>9)</sup>

- 부채차입<sup>10)</sup> : 적자가구 고소득층(소득 5분위)의 부채차입 비율은 2013년 이후 저소득층(소득 1분위)과 중간소득층(소득 3분위)을 상회함
- 소득별 적자가구 :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비율(2001년 18.9%⇒2014년 17.8%)은 2001~2011년 저소득층(2001년 28.6%⇒2014년 10.2%)을 하회
- 금융위기 이후 변화 :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2009년 10.4%⇒2013년 24.7%, 2014년 17.8%) 증가하며 2013년 이후 저소득층(2009년 13.9%⇒2013년 11.6%, 2014년 10.2%)과 중간소득층(2009년 11.7%⇒2013년 8.8%, 2014년 10.9%)을 상회
- 한편, 고소득층 전체가구의 부채차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정체 상태(2009년 4.1%⇒2014년 4.0%)이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하락. 고소득층 전체가구의 부채차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 저소득층보다 낮은 수준임

<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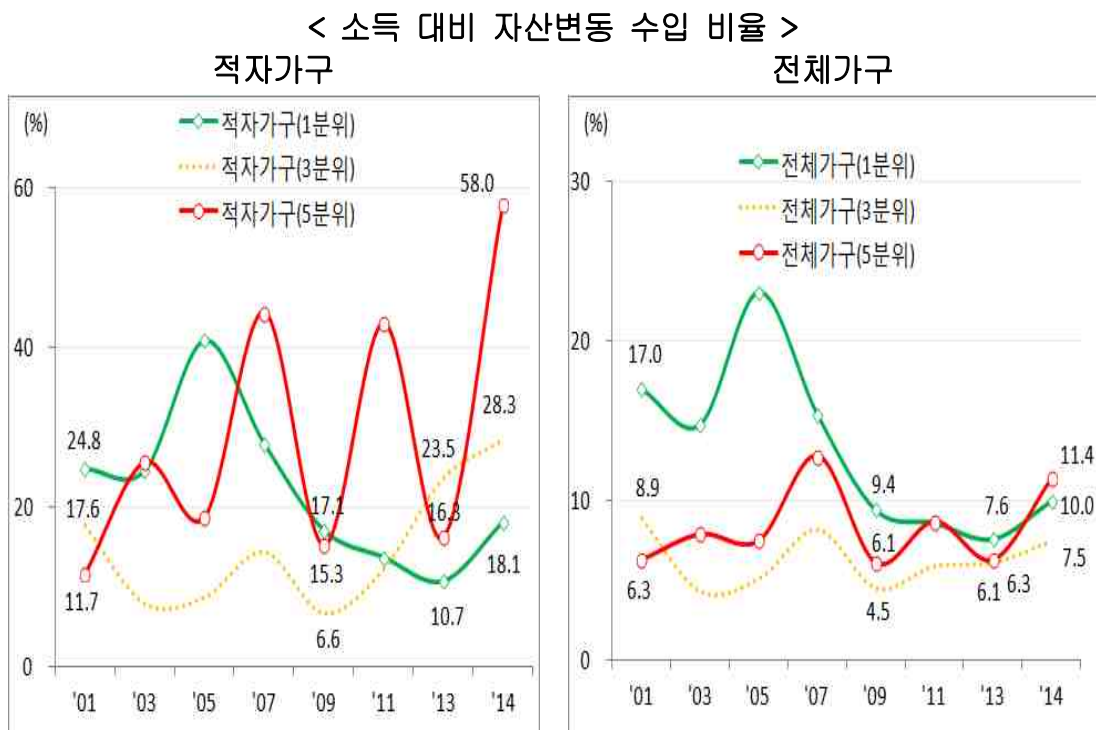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9) 소득분위별 부채와 자산 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소득분위별 소비품목, 자산과 부채 추이” 참조.

10) 부채차입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을 의미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포함.

- 자산변동 수입<sup>11)</sup> :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수입 비율이 저소득층 대비 높은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
- 소득별 적자가구 : 적자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수입 비율(2001년 11.7%⇒2014년 58.0%)은 46.3%p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2001년 24.8%⇒2014년 18.1%)은 6.7%p 하락
- 금융위기 이후 변화 :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2009년 15.3%⇒ 2014년 58.0%)하며 저소득층(2009년 17.1%⇒ 2014년 18.1%)보다 높은 수준임
- 반면, 고소득층 전체가구의 자산변동 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2009년 6.1%⇒2014년 11.4%)이나 2009~2013년 저소득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가 2014년부터 저소득층 상회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11)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 및 보험탄 금액, 유가증권 매각,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

○ (가계 지출)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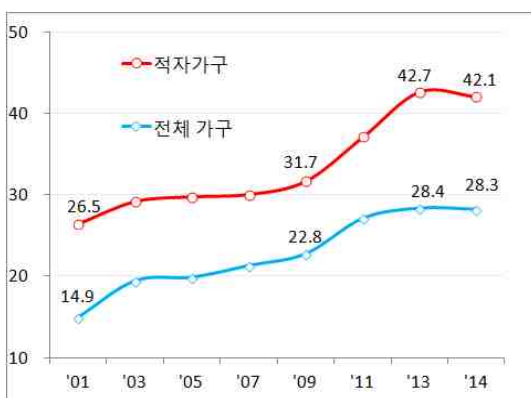
- 부채상환<sup>12)</sup>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높고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2001년 26.5%⇒ 2014년 42.1%)은 2001~2014년 전체가구 비율(2001년 14.9%⇒2014년 28.3%)를 상회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증가세(2009년 31.7%⇒ 2013년 42.7%)를 보였으나 2014년 42.1%로 비중이 소폭 하락
- 전체가구의 부채상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5.5%p 상승(2009년 22.8%⇒2014년 28.3%)

- 자산변동 지출<sup>13)</sup>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지출 비율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지출(2001년 30.1%⇒ 2014년 36.6%)은 전체가구 비율(2001년 22.5%⇒ 2014년 24.0%)을 항상 상회함
- 적자가구의 소득대비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4.4%에서 2014년 36.6%로 12.2%p 증가했고 전체가구 증가분을 상회
- 전체가구의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3.4%p 상승(2009년 20.6%⇒ 2014년 24.0%)

<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추이 >



< 소득 대비 자산변동 지출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12) 가계의 부채감소를 위한 부채상환 지출은 '부동산 대출 상환'과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으로 구성됨.

13)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은 저축 및 적금, 저축성보험료, 펀드, 유가증권 구입,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보증금 제공, 기타자산형태의 변동을 포함.

○ (소득수준별 가계 지출)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보다 크게 증가<sup>14)</sup>

- 부채상환<sup>15)</sup> : 적자가구의 고소득층(소득 5분위) 부채 상환 비율이 저소득층(소득 1분위) 대비 높고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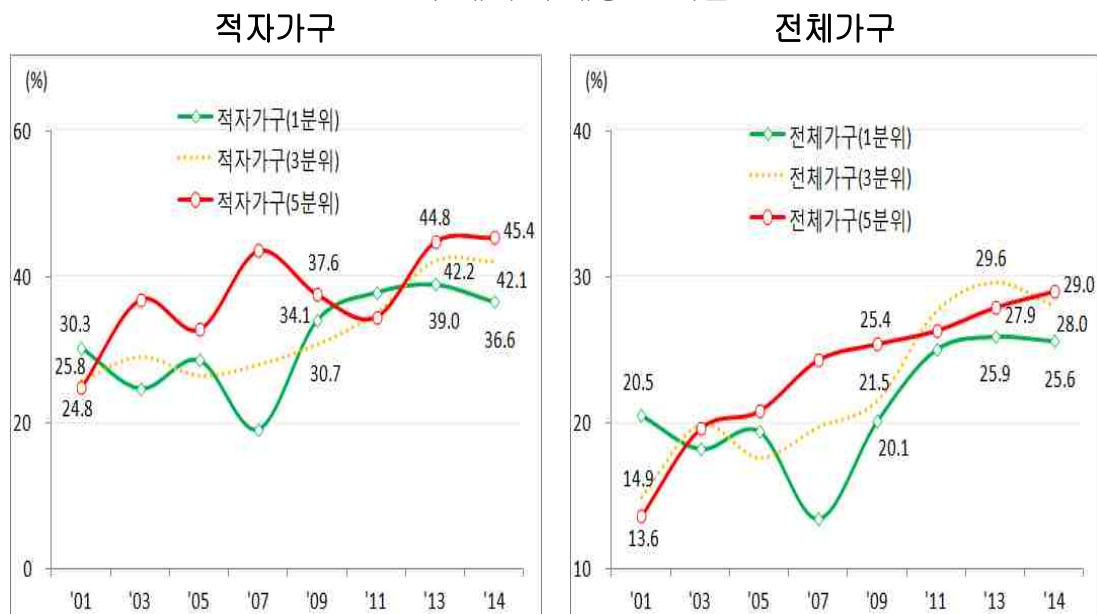
· 소득별 적자가구 : 적자가구의 고소득층의 부채 상환 비율은 크게 증가(2001년 24.8%⇒2014년 45.4%)하며 저소득층(2001년 30.3%⇒2014년 36.6%)과 중간소득층(2001년 25.7%⇒2014년 42.1%)을 상회함

· 금융위기 이후 변화 : 적자가구의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7.8%p 상승(2009년 37.6%⇒2014년 45.4%)하며 저소득층 상승 폭(2.5%p, 2009년 34.1%⇒2014년 36.6%)보다 큰 수준임

· 적자가구 중간소득층은 2009~2014년 11.4%p(30.7%⇒42.1%) 증가

· 한편, 전체가구 고소득층은 금융위기 이후 3.6%p 증가(2009년 25.4%⇒2014년 29.0%)하며 저소득층 증가 폭(5.5%, 20.1%⇒25.6%)보다 낮은 수준임

<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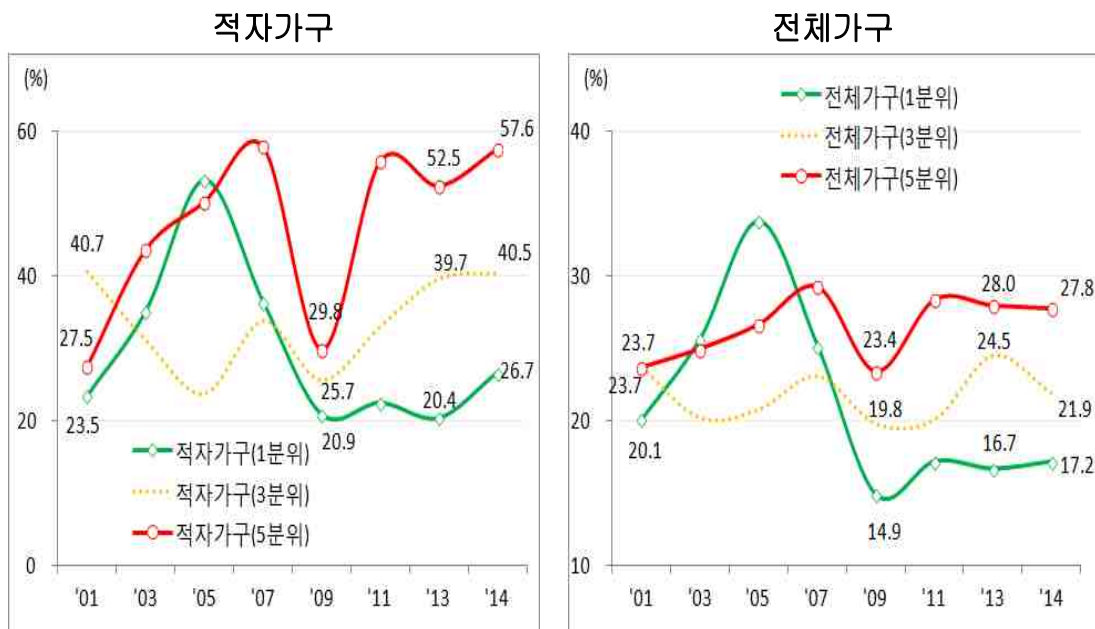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14) 소득분위별 부채와 자산 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1]소득분위별 소비품목, 자산과 부채 추이” 참조.

15) 부채상환은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부동산대출 상환,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등 포함.

- 자산변동 지출<sup>16)</sup> :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지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폭이 컸음
- 소득별 적자가구 : 고소득층(소득 5분위)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변동 지출 비중(2001년 27.5%⇒2014년 57.6%)이 저소득층(2001년 23.5%⇒2014년 26.7%)과 중간 소득층(40.7%⇒40.5%) 대비 대부분 기간중 높은 수준임
- 금융위기 이후 :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7.8%p 상승(2009년 29.8%⇒2014년 57.6%)하며 저소득층 상승 폭(5.8%p, 20.9% ⇒26.7%)과 중간소득층 상승 폭(14.8%p, 25.7%⇒40.5%)을 상회
- 한편, 전체가구의 고소득층의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 (2009년 23.4%, 2011년 28.4%⇒2014년 27.8%)했고 저소득층 비율은 정체 상태 임(2009년 14.9%, 2011년 17.2%⇒2014년 17.2%)

< 소득 대비 자산변동 지출 비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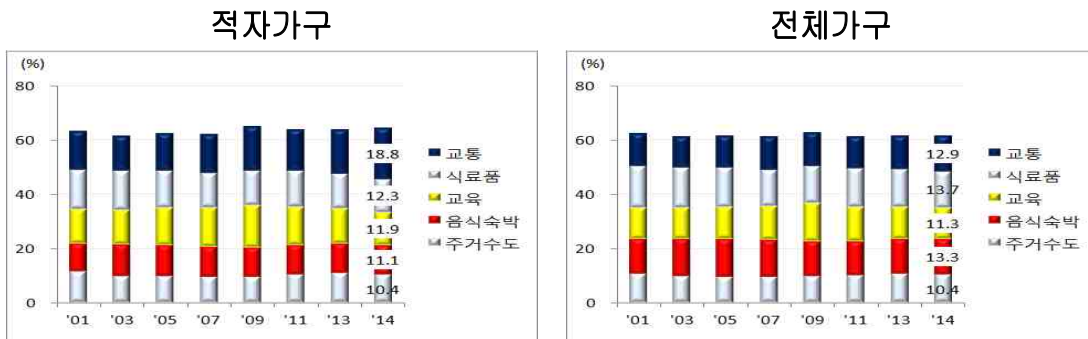
16)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은 저축 및 적금, 저축성보험료, 펀드, 유가증권 구입,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보증금 제공, 기타자산형태의 변동을 포함.

○ (품목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의 교통과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이 크나 금융위기 이후 교통 부문만 비중이 증가함

- 적자가구의 소비 품목 중에는 교통의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위기 이후 증가 폭은 전체가구 보다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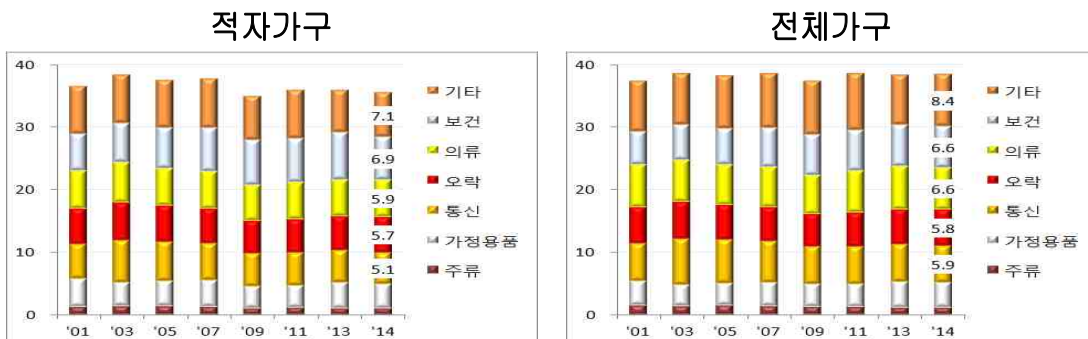
- 전체 對 적자가구 : 적자가구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교통(자동차 구입 포함), 식료품, 교육, 음식·숙박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고 교통의 경우에는 전체가구 평균값을 크게 상회(17)
-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 음식·숙박, 교통,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음
- 금융위기 이후 : 적자가구의 소비 품목 중 교통 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6.2%에서 18.8%로 상승한 반면, 식료품(2009년 12.9%⇒2014년 12.3%)과 교육(2009년 15.6%⇒2014년 11.9%) 부문은 비중이 축소
- 한편,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13.8%⇒13.7%)과 음식·숙박(13.1%⇒13.3%) 은 금융위기 이후 정체상태에 가깝고 교통(12.2%⇒12.7%)은 소폭 상승

< 품목별 소비 비중-1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 품목별 소비 비중-2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17) 교통, 식료품, 교육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2001~2014년 평균 각각 3.1%, 4.4%, 3.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상회. 적자가구 소비에서 상위 3개 품목(43.0% 교통, 식료품, 교육)의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상회하여 물가상승률은 적자가구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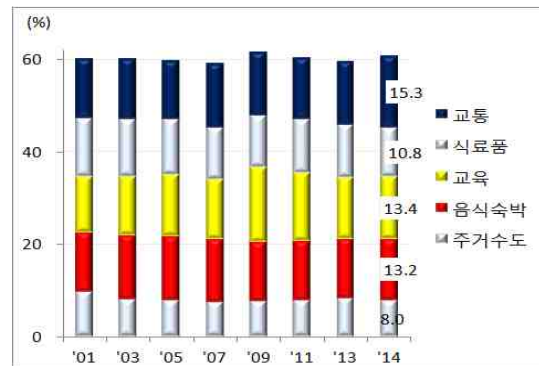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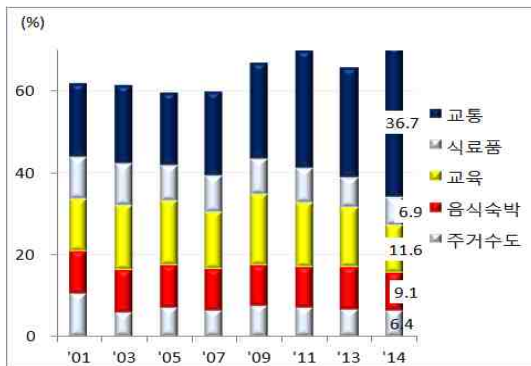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교통과 교육 부문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의 비중이 큼

- 고소득층(소득 5분위) 적자가구의 소비 비중은 교통 부문이 36.7%로 가장 큼)
  - 고소득층 적자가구 :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경우 교통(36.7%), 교육(11.6%), 음식·숙박(9.1%)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음. 특히, 교통의 경우에는 전체가구(15.3%) 보다 21.4%p나 높으나 교육과 음식·숙박 부문은 전체가구를 하회
  - 전체가구의 경우 교통(15.3%), 교육(13.4%), 음식·숙박(13.2%)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교통 부문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13.4%p 상승(2009년 23.3%⇒2014년 36.7%)하나 교육(17.1%⇒11.6%)과 음식·숙박(10.0%⇒9.1%)은 각각 5.5%p와 0.9% 하락함

< 소득분위별 소비 비중-1 (소득 5분위) >

적자가구

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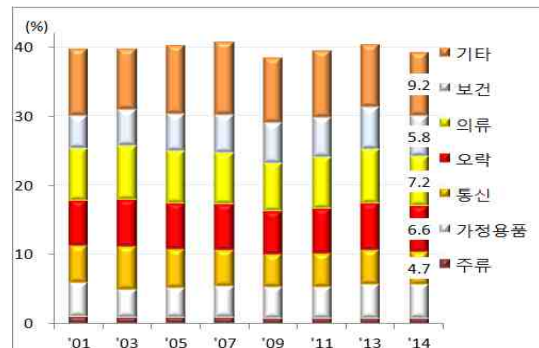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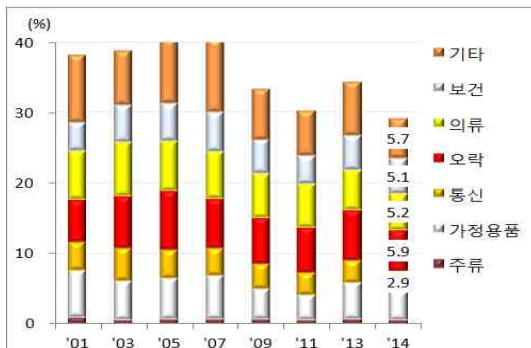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 소득분위별 소비 비중-2 (소득 5분위) >

적자가구

전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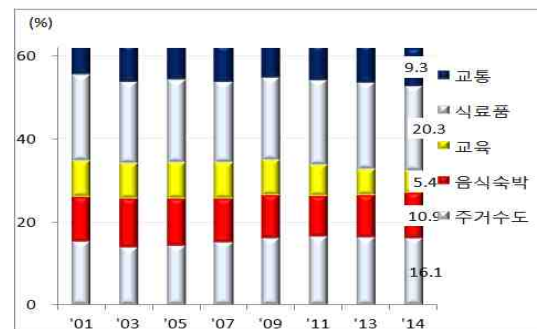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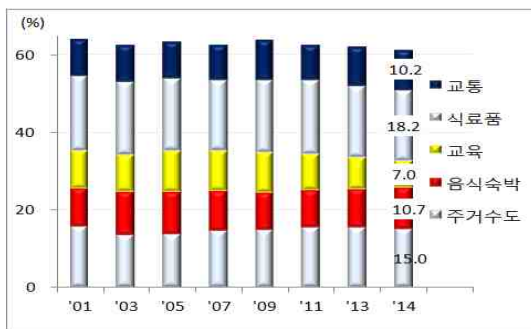
18) 고소득층(소득 5분위) 적자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통과 교육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2009~2014년 각각 1%대 상승률에 그쳐 고소득층의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소비는 식료품과 주거·수도 등 필수재 비중이 크고 금융위기 이후 상위 3개 품목 비중은 상승함
- 저소득층 적자가구 : 저소득층(소득 1분위) 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18.2%), 주거·수도(15.0%), 음식·숙박(10.7%), 보건(10.4%) 순임
- 전체가구의 경우도 식료품(20.3%, 2014년), 주거·수도(16.1%), 음식·숙박(10.9%), 보건(10.0%) 순으로 적자가구와 순위가 동일
- 금융위기 이후 :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식료품 소비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2009년 18.7%⇒2014년 18.2%)한 반면 주거·수도(14.7%⇒15.0%), 음식·숙박(9.7%⇒10.7%) 부문 소비 비중은 상승함
- 상위 3개 품목의 지출 비중은 43.1%(2009년)에서 43.9%(2014년)로 상승<sup>19)</sup>
- 한편,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보건(2009년 9.8%⇒2013년 11.0%, 2014년 10.4%) 부문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커지나 교육 부문(10.3%⇒7.0%)은 작아짐

< 소비 비중-1 (소득 1분위) >

적자가구

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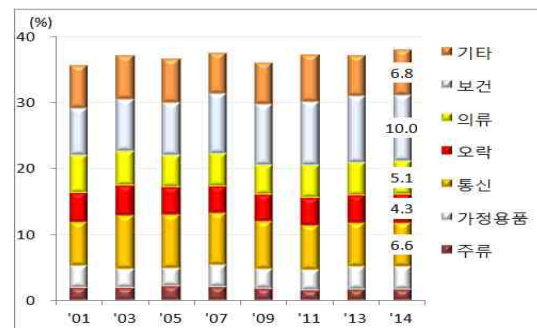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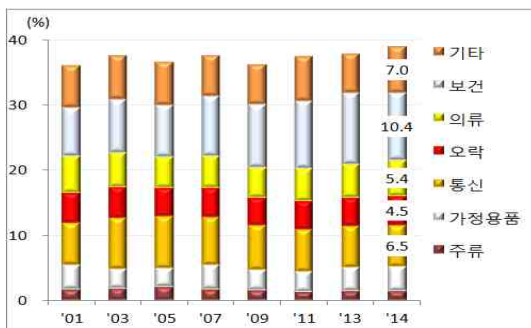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 소비 비중-2 (소득 1분위) >

적자가구

전체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19) 저소득층(소득 1분위) 적자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인 식료품과 주거·수도의 물가 상승률이 2009~2014년 각각 4.6%와 3.2%로 소비자물가(평균 2.4%)를 상회하여 저소득층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



#### 4. 시사점

##### 첫째, 가계소득 제고를 통한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개선 방안 필요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적자가구 비중이 커짐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적자가구 가구의 소득여건을 개선 필요
- 기존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 유도

##### 둘째, 적자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 시급

- 적자가구의 부채상환 부담이 금융위기 이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가계부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규모와 부채상환 부담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간소득층도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부채상환 부담이 가계의 여력을 넘는 저소득 적자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정책도 강화해야 함
  - 가계부채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국민행복기금' 확대 및 추가적인 채무 조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단, 부채를 갚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함

##### 셋째, 가계의 품목별 및 소득별 소비구조를 고려한 지원 대책 필요

- 저소득층 적자가구에 대한 식료품, 보건 등 필수재 부문 공급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필수 소비재 바우처(가칭)' 도입 필요
  - 저소득층 적자가구는 식료품, 주거·수도, 음식·숙박, 보건 등 필수재의 비중

이 크고 고소득층 적자가구는 교통과 교육의 비중이 큼

- 적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이 다름을 고려하여 물가 등 관련 정책의 소득분위별 차별화된 디자인 필요
- 적자가구의 소비는 교통(자동차 구입 등), 식료품, 교육 부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넷째,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부실로 인한 국내 경제 활력 저하 우려에 대한 방어에 주력

- 최근 적자가구의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가구들의 가계의 부채상환 증가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
-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우려, 가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으로 소비감소가 경기부진을 심화하면서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의 추가적 감소 등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HRI**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첨부 1】 소득분위별 소비품목, 자산과 부채 추이

<전체가구 소득 5분위별 품목별 소비 비중>

분위	년	식료품	주류	의류	주거수도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숙박	기타
1	'01	20.7	1.9	5.6	15.2	3.3	7.2	8.9	6.7	4.4	8.6	11.0	6.5
	'03	19.8	1.9	5.3	13.9	2.9	7.9	9.0	8.0	4.6	8.4	11.7	6.7
	'05	20.0	2.2	4.8	14.3	2.7	8.0	9.1	8.1	4.2	8.6	11.4	6.6
	'07	19.5	2.0	4.8	15.0	3.4	9.2	8.7	7.8	4.1	8.5	10.7	6.2
	'09	19.9	1.8	4.4	16.1	3.0	9.2	9.3	7.2	4.1	8.3	10.4	6.2
	'11	20.5	1.5	4.9	16.4	3.1	9.7	8.6	6.8	4.1	7.4	10.0	7.1
	'13	20.8	1.6	4.9	16.3	3.4	10.1	9.3	6.7	4.2	6.3	10.1	6.2
	'14	20.3	1.7	5.1	16.1	3.5	10.0	9.3	6.6	4.3	5.4	10.9	6.8
2	'01	18.3	1.7	6.2	11.6	3.1	5.6	11.5	6.8	5.2	10.4	12.9	6.9
	'03	16.5	1.6	6.0	11.0	3.0	5.6	10.5	8.2	5.3	10.9	13.8	7.6
	'05	16.2	1.8	5.5	11.5	3.2	6.2	11.1	8.2	4.5	10.5	13.8	7.5
	'07	15.5	1.8	5.4	11.5	3.4	6.7	10.7	7.8	4.6	12.2	13.2	7.3
	'09	15.8	1.5	5.4	11.9	2.9	7.5	10.2	7.4	4.4	11.3	13.3	8.4
	'11	15.8	1.5	6.0	11.8	3.1	6.4	11.3	6.9	4.7	11.1	12.9	8.5
	'13	15.7	1.4	6.2	13.0	3.5	6.6	10.5	7.1	4.7	10.3	13.4	7.5
	'14	15.9	1.4	6.3	12.4	3.7	6.6	10.3	7.1	4.9	10.1	13.6	7.6
3	'01	16.6	1.6	6.4	10.4	3.5	5.6	11.9	6.4	5.7	11.4	13.1	7.4
	'03	14.8	1.4	6.3	9.9	3.0	5.6	11.1	7.8	5.7	11.5	14.9	8.0
	'05	14.8	1.6	6.0	9.9	3.3	5.4	11.8	7.6	5.3	11.5	14.7	8.2
	'07	14.0	1.6	6.1	10.0	3.3	5.7	12.3	7.2	4.7	12.7	14.4	8.0
	'09	14.3	1.3	5.8	9.9	3.1	6.0	11.6	6.6	4.9	14.3	13.6	8.6
	'11	14.4	1.3	6.4	10.6	3.5	6.4	11.2	6.5	5.0	12.3	13.2	9.3
	'13	14.3	1.3	6.8	11.2	3.7	6.5	11.3	6.7	5.3	10.9	13.9	8.1
	'14	14.1	1.2	6.5	10.3	3.6	6.7	13.0	6.2	5.6	10.9	13.5	8.4
4	'01	14.9	1.4	6.7	10.0	3.7	5.1	12.6	6.0	5.9	12.6	13.1	8.0
	'03	14.0	1.2	6.9	9.2	3.6	5.3	11.8	7.3	6.1	11.6	14.4	8.5
	'05	13.5	1.4	6.6	8.9	3.5	5.5	12.7	7.0	5.5	12.3	14.6	8.3
	'07	12.8	1.2	6.8	8.7	3.4	5.9	12.4	6.6	5.7	13.0	14.4	9.1
	'09	13.0	1.2	6.5	8.6	3.3	6.2	13.2	6.1	5.2	14.4	13.8	8.4
	'11	13.3	1.1	6.9	8.7	3.6	6.3	12.1	5.9	5.8	13.8	13.1	9.3
	'13	13.0	1.0	7.0	9.6	3.7	5.9	13.5	5.9	5.6	13.5	13.5	7.8
	'14	13.1	0.9	6.8	9.8	3.8	6.2	12.8	6.0	6.2	12.2	13.9	8.3
5	'01	12.6	1.0	7.6	9.8	4.9	4.7	13.0	5.4	6.6	12.0	12.9	9.6
	'03	12.6	0.9	7.7	8.1	4.0	5.3	13.1	6.3	6.8	12.6	13.8	8.8
	'05	11.9	0.9	7.5	7.9	4.2	5.4	12.7	5.7	6.6	13.3	13.9	9.9
	'07	11.2	0.9	7.4	7.5	4.5	5.6	14.0	5.3	6.6	12.9	13.6	10.5
	'09	11.3	0.8	7.0	7.7	4.5	5.8	13.6	4.7	6.2	16.0	12.9	9.4
	'11	11.8	0.8	7.4	7.9	4.5	5.8	13.3	4.9	6.4	14.5	13.0	9.7
	'13	11.4	0.7	7.7	8.3	4.9	6.1	13.7	5.1	6.8	13.2	13.0	9.1
	'14	10.8	0.8	7.2	8.0	4.9	5.8	15.3	4.7	6.6	13.4	13.2	9.2

<적자가구 소득 5분위별 품목별 소비 비중>

분위	년	식료품	주류	의류	주거수도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숙박	기타
1	'01	19.3	1.7	5.6	15.5	3.7	7.4	9.3	6.6	4.6	9.7	10.0	6.6
	'03	18.9	1.8	5.3	13.5	2.9	8.2	9.3	7.9	4.7	9.5	11.1	6.7
	'05	18.7	2.0	4.8	13.7	2.9	7.9	9.5	8.0	4.4	10.7	10.8	6.6
	'07	18.1	1.7	4.9	14.5	3.7	9.2	9.1	7.4	4.4	10.4	10.3	6.2
	'09	18.7	1.5	4.5	14.7	3.2	9.8	10.3	6.8	4.3	10.3	9.7	6.2
	'11	19.1	1.3	5.1	15.4	3.2	10.3	9.2	6.4	4.3	9.2	9.7	6.9
	'13	18.7	1.4	5.1	15.4	3.6	11.0	10.1	6.4	4.4	8.1	9.8	6.1
	'14	18.2	1.4	5.4	15.0	3.7	10.4	10.2	6.5	4.5	7.0	10.7	7.0
2	'01	16.1	1.4	5.8	10.9	3.8	5.8	14.6	6.2	5.7	12.1	10.7	6.8
	'03	14.7	1.4	6.3	10.1	3.3	5.5	11.7	7.5	6.0	13.7	12.5	7.3
	'05	14.4	1.4	5.6	10.2	3.5	7.1	12.4	7.2	4.7	13.8	12.2	7.4
	'07	13.7	1.4	5.7	9.9	3.7	6.9	11.8	6.9	5.2	15.6	11.9	7.4
	'09	13.6	1.1	5.5	10.3	3.1	8.3	11.7	6.3	4.6	15.8	11.9	7.7
	'11	13.6	1.2	6.0	10.3	3.1	6.0	13.5	6.1	5.2	14.9	11.6	8.5
	'13	13.6	1.1	6.2	12.6	3.3	7.5	12.4	6.1	5.2	13.3	11.6	7.1
	'14	13.5	1.1	6.3	10.7	3.7	6.1	11.5	6.0	5.7	15.5	12.8	7.1
3	'01	13.5	1.2	6.0	10.4	4.4	5.6	14.5	5.7	6.3	14.0	10.7	7.5
	'03	13.2	1.1	6.7	8.9	3.7	5.7	13.0	6.4	6.5	13.5	12.8	8.4
	'05	12.9	1.2	6.1	8.6	3.7	5.7	14.1	6.1	6.2	15.5	12.2	7.8
	'07	11.4	1.1	6.1	8.8	3.7	6.4	16.0	5.8	5.0	16.3	12.1	7.3
	'09	11.7	1.0	5.9	8.2	3.4	6.9	16.1	5.2	5.3	17.7	11.4	7.3
	'11	11.8	1.0	6.0	9.9	4.2	6.1	15.0	5.2	5.0	15.8	11.6	8.5
	'13	11.8	1.0	6.4	10.1	4.8	6.6	14.7	5.2	5.9	14.7	11.8	7.1
	'14	11.0	0.9	6.2	9.7	4.5	6.0	19.7	4.6	6.3	12.1	10.8	8.1
4	'01	12.0	1.0	6.0	9.7	4.2	6.0	17.2	4.8	6.0	14.4	10.4	8.3
	'03	11.7	0.8	6.7	7.9	5.2	5.6	15.8	5.6	6.9	12.8	11.6	9.4
	'05	10.7	1.0	6.7	7.6	4.7	5.8	18.6	5.2	6.4	14.5	11.5	7.4
	'07	10.1	1.0	6.8	7.2	4.2	5.9	17.5	5.0	6.5	15.3	11.7	8.9
	'09	10.3	0.7	6.6	6.8	3.5	5.2	22.1	4.5	5.3	17.9	10.5	6.7
	'11	11.1	0.8	6.7	7.8	4.1	6.6	17.5	4.2	6.2	16.8	10.2	8.0
	'13	10.1	0.6	6.1	8.1	4.2	6.1	23.1	4.1	5.4	15.7	10.0	6.5
	'14	9.6	0.7	6.1	8.7	3.5	5.8	21.6	4.6	6.6	13.6	11.6	7.6
5	'01	10.2	0.8	6.9	10.4	6.7	4.2	18.0	4.0	6.0	12.8	10.4	9.6
	'03	10.3	0.5	7.6	5.9	5.5	5.4	19.0	4.7	7.4	15.6	10.4	7.8
	'05	8.7	0.6	7.0	7.1	5.8	5.4	17.7	4.1	8.3	15.7	10.4	9.3
	'07	8.8	0.6	6.6	6.2	6.2	5.7	20.4	3.9	7.0	13.9	10.3	10.4
	'09	8.7	0.5	6.4	7.5	4.4	4.8	23.3	3.6	6.5	17.1	10.0	7.2
	'11	8.4	0.5	6.1	7.1	3.6	4.2	28.7	3.2	6.4	15.8	9.8	6.3
	'13	7.4	0.6	5.6	6.7	5.1	5.0	26.8	3.3	7.2	14.4	10.3	7.7
	'14	6.9	0.5	5.2	6.4	4.1	5.1	36.7	2.9	5.9	11.6	9.1	5.7

< 전체가구 및 적자가구 품목별 소비 비중 >

가구	년	식료품	주류	의류	주거수도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숙박	기타
전체가구	'01	15.7	1.4	6.7	10.9	3.9	5.4	12.0	6.1	5.8	11.4	12.7	8.0
	'03	14.8	1.3	6.7	9.8	3.4	5.7	11.5	7.3	6.0	11.4	13.9	8.1
	'05	14.4	1.5	6.4	9.8	3.5	5.8	11.9	7.0	5.5	11.8	13.9	8.5
	'07	13.6	1.4	6.4	9.7	3.8	6.2	12.2	6.6	5.4	12.3	13.6	8.8
	'09	13.8	1.2	6.1	9.8	3.6	6.6	12.2	6.1	5.2	13.8	13.1	8.5
	'11	14.2	1.2	6.6	10.1	3.7	6.6	11.8	5.9	5.5	12.6	12.7	9.0
	'13	14.0	1.1	6.8	10.7	4.0	6.6	12.2	6.1	5.6	11.7	13.0	8.1
	'14	13.7	1.1	6.6	10.4	4.1	6.6	12.9	5.9	5.8	11.3	13.3	8.4
적자가구	'01	14.7	1.2	6.0	11.6	4.4	6.0	14.3	5.6	5.7	12.4	10.4	7.6
	'03	14.6	1.3	6.3	10.0	3.9	6.4	12.8	6.8	6.0	12.5	11.7	7.7
	'05	13.7	1.3	5.9	9.9	3.9	6.6	13.8	6.3	5.8	13.8	11.4	7.6
	'07	12.8	1.2	5.9	9.7	4.2	7.0	14.5	6.0	5.5	14.2	11.2	7.9
	'09	12.9	1.0	5.7	9.7	3.5	7.2	16.2	5.4	5.2	15.6	10.7	7.0
	'11	13.5	1.0	5.9	10.6	3.6	7.0	15.2	5.3	5.3	14.1	10.7	7.8
	'13	13.0	1.0	5.8	11.2	4.1	7.6	16.3	5.2	5.4	12.9	10.7	6.8
	'14	12.3	1.0	5.9	10.4	3.9	6.9	18.8	5.1	5.7	11.9	11.1	7.1

< 가구의 소득분위별 자산수입과 부채차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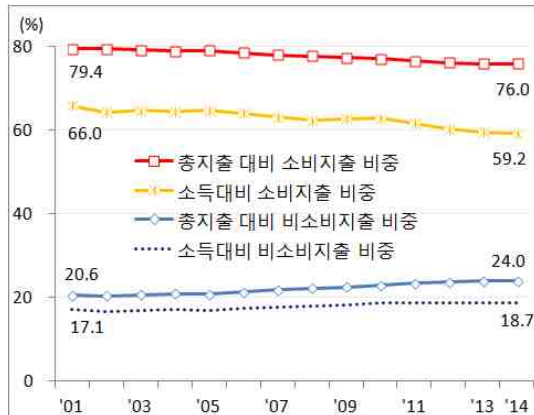
구분	분위	'01	'03	'05	'07	'09	'11	'13	'14	
전체가구	자산수입	전체	7.6	7.9	8.3	10.6	5.8	7.3	5.8	8.4
		1분위	17.0	14.8	23.1	15.4	9.4	8.6	7.6	10.0
		2분위	7.9	7.2	8.6	8.9	6.1	4.7	5.6	5.8
		3분위	8.9	4.3	5.1	8.2	4.5	5.9	6.1	7.5
		4분위	5.5	8.9	7.5	8.6	5.0	7.0	4.4	5.4
	5분위	6.3	7.9	7.5	12.8	6.1	8.7	6.3	11.4	
	부채차입	전체	9.9	7	5.9	5.8	4.2	4.9	5.1	3.6
		1분위	17.3	14.1	13.0	8.2	7.8	7.2	6.6	6.2
		2분위	10.2	10.3	6.9	7.5	3.8	4.8	5.5	3.0
		3분위	11.2	6.6	3.6	4.5	4.1	5.9	5.6	3.2
4분위		9.3	4.7	5.6	4.5	3.8	3.8	4.9	2.7	
5분위	8.0	5.9	5.6	6.3	4.1	4.8	4.5	4.0		
적자가구	자산수입	전체	17.1	20.1	22	25.1	11.5	14.7	14.2	23.9
		1분위	24.8	24.6	40.9	28.0	17.1	13.7	10.7	18.1
		2분위	20.7	13.3	19.4	13.1	12.2	7.9	11.6	10.7
		3분위	17.6	7.8	8.6	14.3	6.6	12.1	23.5	28.3
		4분위	9.5	30.6	21.1	26.3	7.2	9.3	11.6	7.0
	5분위	11.7	25.7	18.8	44.5	15.3	43.1	16.3	58.0	
	부채차입	전체	24.9	16.8	15.2	11.4	10	12.8	14.9	11.1
		1분위	28.6	21.5	21.8	11.8	13.9	13.1	11.6	10.2
		2분위	20.9	17.7	14.7	10.3	7.2	11.1	11.7	7.4
		3분위	29.5	14.2	5.2	11.9	11.7	22.7	8.8	10.9
4분위		25.3	13.4	15.5	13.1	7.4	7.4	19.5	10.2	
5분위	18.9	14.4	18.4	10.4	10.4	7.5	24.7	17.8		

< 가구의 소득분위별 자산지출과 부채상환 추이 >

구분	분위	'01	'03	'05	'07	'09	'11	'13	'14	
전체 가구	자산지출	전체	22.5	24.4	24.7	26.9	20.6	23.3	24.5	24.0
	1분위	20.1	25.7	33.8	25.2	14.9	17.2	16.7	17.2	
	2분위	18.1	25.7	23.5	23.8	17.7	18.0	19.5	20.5	
	3분위	23.7	20.2	20.8	23.1	19.8	20.1	24.5	21.9	
	4분위	22.8	25.4	22.6	28.2	19.7	22.2	23.9	23.4	
	5분위	23.7	25.0	26.7	29.3	23.4	28.4	28.0	27.8	
	부채상환	전체	14.9	19.5	19.9	21.3	22.8	27.2	28.4	28.3
	1분위	20.5	18.2	19.4	13.4	20.1	25.0	25.9	25.6	
	2분위	16.7	20.2	17.1	19.7	18.8	25.1	29.5	28.2	
	3분위	14.9	19.9	17.6	19.7	21.5	27.6	29.6	28.0	
4분위	14.4	18.8	21.8	20.7	22.5	30.0	28.4	28.3		
5분위	13.6	19.6	20.8	24.3	25.4	26.3	27.9	29.0		
적자가구	자산지출	전체	30.1	39.0	41.4	45.2	24.4	29.4	34.7	36.6
	1분위	23.5	35.2	53.3	36.5	20.9	22.5	20.4	26.7	
	2분위	25.9	36.1	37.9	29.8	24.3	20.4	27.3	30.2	
	3분위	40.7	31.2	23.8	33.9	25.7	33.1	39.7	40.5	
	4분위	32.7	51.8	42.1	72.9	20.4	27.0	39.7	29.1	
	5분위	27.5	43.7	50.3	57.9	29.8	55.9	52.5	57.6	
	부채상환	전체	26.5	29.2	29.8	30.1	31.7	37.1	42.7	42.1
	1분위	30.3	24.7	28.6	19.1	34.1	37.9	39.0	36.6	
	2분위	28.9	31.4	27.0	27.6	25.3	36.5	44.6	42.5	
	3분위	25.7	29.0	26.4	27.9	30.7	35.0	42.2	42.1	
4분위	22.2	26.8	35.6	30.9	31.5	41.0	43.1	44.1		
5분위	24.8	36.9	32.8	43.6	37.6	34.5	44.8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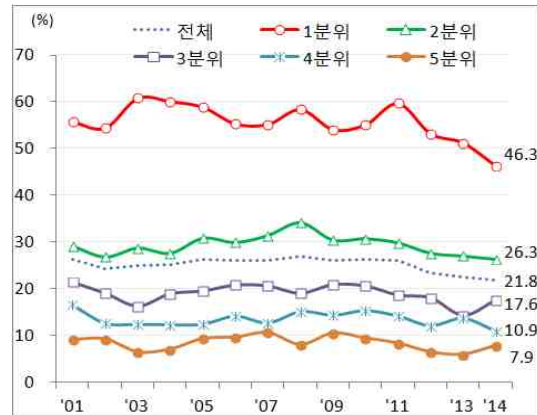
【첨부 2】 소득 대비 지출 비중 및 소득 분위별 적자가구 비중

< 소득 대비 지출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

< 소득 분위별 적자가구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도시 2인 이상 실질 기준.